

창조적인 도전으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앞당긴다

중부내륙지역이 한반도의 물류중심축이라면,
강원도를 축으로 한 동해안지역은 『PeaceSea 비전』을
추진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산업구조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여행, 관광, 레저가 특히 발달한 지역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PeaceSea 비전』을 추진하는 등 『강원 7+3플랜』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있다.

기업유치, 농림어업, 으뜸상품 브랜드화 등 전방위적인 세일즈 전략을 추진하고, 강원도 전 지역을 관광, 스포츠, 레저, 건강특구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강원도는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산업에 총 260개 업체에서 9,350여 명이 종사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어업이 23개 업체로,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적은 분포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이 72,444개로 강원도 전체 113,276개 중 63%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도 189,79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가 종사하고 있어, 강원도가 관광, 여행, 레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강릉시는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바로 연결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강릉은 제조업 중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의 9.5%인 4,845명이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제조업 또는 호텔, 콘도, 병원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소규모 현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즉,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지 않았고, 서비스업종이 많은 관계로 강릉시 2003년도 산업재해율은 0.60%로 전국 평균 0.78%보다 0.18% P났다.

한편,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합재해예방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에서 안전기술을 지원·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은 0.25%로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을 자랑하고 있어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강원지회 관계자는 안전관리사

각지역에 놓여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한 결과라고 말한다.

지역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산업단지가 발달하지 않은 강원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기업을 찾아 그곳에서 시행하는 안전활동이 무엇인지, 담당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들어본다.

《(주)쌍용동해산기 금진환 품질안전팀장》》

(주)쌍용동해산기는 쌍용양회공업(주)라는 기계전문업체로 시작하여, 98년 사명을 변경하여 기계제작·보수업체로 다시 태어났다.

(주)쌍용동해산기에는 안전을 총지휘하는 금진환 품질안전팀장이 있다.

금진환 팀장은 93년부터 안전업무를 수행한, 그의 경력에 비해서는 늦깎이 안전인이다. 늦게 시작한 안전이지만 93년도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안전을 시작하는 초기단계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흐린 시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전에 대해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안전의 달인이다.

안전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호흡을 맞춰 매진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금진환 팀장은 서로 호흡을 맞추는 협동심이 요구되는 2인 3각 경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 이를 자주 비유한다.

안전을 사고로부터 배우지 말라고 강조하는 금진환 팀장은 우리나라의 냄비 근성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아울러 이러한 근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인 의식 개혁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금진환 팀장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실질적이고, 근로자들이 쉽고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교안을 손수 만든다. (주)쌍용동해산기 뿐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교육하는 금진환 팀장은 지금까지 110여회의 강의를 했다.

이처럼 지식 전달에 적극적인 것은 “안전은 독과점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모두가 공유할 때 우리나라의 안전이 선진국 안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립한 안전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길은 안전교육을 자주하는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는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쌍용동해산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한장 한장 교육교안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 금진환 품질안전팀장

금진환 팀장의 열성은 보건업무에서도 볼 수 있다. 97년부터 관리해 온 “근로자 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그것인데,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근로자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는 7년동안 1월 1회 채혈을 통해 성인병 검사를 하고, 다음날 바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과 수치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건강관리카드에 기반을 두어 집중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노조위원장도 예외 없다. 전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수치가 나쁜 근로자를 집중 관리하여 지금은 정상인의 70% 수준까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독할 정도로 추진한 개인별 건강관리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고맙다고 말하는 근로자가 더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금진환 팀장은 안전업무를 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얘기한다.

이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김동진 사장의 신뢰와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처럼 안전관리를 신뢰하고 절대적인 후원자로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김동진 사장과 이를 추진하는 금진환 팀장이 있어, 1년에 평균 8건 정도 발생하던 (주)쌍용동해산기는 무재해 3배라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되었다.

〈 IG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장공사 3공구 박우영 안전관리자 〉

도로공사에서 달성하기 힘든 무재해 5배를 달성하고, 2003년도 도로공사에서 선정한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받은 깨끗한 현장 IG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장공사 3공구(고기성 소장에서 박우영 안전관리자를 만났다. 총 연장 9km에 교량 15개, 장대교 5개, 대절토 구간 1개소로 이루어진 동해고속도로 확장공사 3공구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우영 안전관리자는 96년 8월에 울산공항 신축공사 현장에 입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건설안전인이 되고 있다.



▲ 박 우 영 안전관리자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박우영 안전관리자는 처음 안전에 입문할 때 이상주의를 갖고 현장에 뛰어 들었다가 현실과 사뭇 다른 환경에 후회와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할 때가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다며 안전을 전공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는 긍정적이고 신명나게 안전관리를 전개해서일까? 2003년도에 무재해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우수한 안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 모든 가족에게 플러스요인이 되어 돌아왔으며, 안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현장가족 모두가 함께 해주었고, 특히, 확고한 안전마인드를 갖고 있는 고기성 소장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무재해를 이어가 동해고속도로 공구 중 가장 안전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구간으로 기억되게 한다는 각오이다.

끝으로, 박우영 안전관리자는 강원도 지역 안전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자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올바른 안전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긴다. 눈을 떠 배우는 자세와 이를 실천할 때 지역의 안전인으로 업그레йд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안전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견학을 다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산업현장에도 우리의 안전을 배우기 위한 외국인을 많이 접할 수 있길 기원하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학교에서 배운 이상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박우영 안전관리자의 바람이다.

재난방지시스템

강원도는 16개 시·군 216개소(재해위험 96, 일반침수 120)에 대해 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재해 유형별 상황대처 매뉴얼을 작성·보급한다. 또한 짬질방, 산후조리원 등 재난관리대상시설 신종업종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강원도는 어린 새싹의 안전의식 고취와 올바른 안전의식 주입에도 한창이다. 그 예로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들 수 있다. 대상은 초교생으로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와 자전거사랑 강원운동본부는 4월 24일과 5월 29일, 6월 2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춘천시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면허증을 교부한다. 

〈최종덕 기자〉

